

손에 공 맞은 박해민

등록 2023.03.13 20:42:34



[도쿄=뉴시스] 김선웅 기자 =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(WBC) 2023 B조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, 3회초 박해민이 번트 시도 중 투구에 맞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. 2023.03.13. mangust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